

## AP “한국 여자 골프 지배력 떨어졌다”



▲ 박인비. 사진=Olympic.com

“도쿄올림픽은 한국 선수들의 하락세를 일깨워 주었다”

AP가 한국 여자 골프의 올 시즌 부진을 조명했다.

11일 'JTBC GOLF'에 따르면 AP는 이날 '한국 선수들의 하락세를 일깨워준 올림픽'이라는 기사를 통해 올 시즌 부진한 한국 여자 골프 상황을 조명했다. 올 시즌 한국 여자 골프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0개 대회 중 3개 대회 우승에 그쳐 미국(6승), 태국(4승) 등에 밀려있다. 또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고,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리스트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AP는 “한국 선수들의 지배력이 떨어졌다. 올림픽에서 선수 4명이 나왔지만, 한국 선수들은 한 명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메이저 대회에서도 두드러진다. 2011년 이후 매년 최소 1명의 메이저 챔피언을 배출했는데, 다음 주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하면 막을 내릴 수 있는 행보”라고 전했다.

물론 AP는 “한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기엔 이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AP는 “지난해 7월 LPGA 투어가 재개된 이후에도 많은 한국 선수들이 집에 머물렀다. 김효주는 2020년 LPGA 투어에서 뛰지 않았다. 고진영과 이정은은 1년 동안 미국 대회에 나서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박인비는 AP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면서도 “경쟁자들의 수준이 올라왔다. 특히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의 많은 선수들이 그렇다. 정상급에서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박효준, MLB 데뷔 첫 홈런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4년 7월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계약금 116만 달러에 사인하고 미국행을 택했던 박효준(25)이 지난 10일 자신의 첫 MLB 홈런을 기록했다.

미국행 이후 마이너리그 생활을 시작한 박효준은 빛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7월17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양키스 주전들의 즐부상으로 빅리그에 콜업되는 기쁨을 누렸다. 그리고 이날 양키스가 0-3으로 뒤진 7회말 2사 1, 3루 찬스에서 대타로 출전하며 한국인 25번째 메이저리거의 탄생을 알렸다. 박효준은 이 타석에서 아쉽게 1루 땅볼로 아웃됐고 그는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박효준은 지난달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트레이드됐다. 박효준은 이 트레이드로 기회를 잡았다. 박효준은 지난 1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2루타)와 1득점을 기록했다. 자신의 첫 MLB 안타였다. 이후 박효준은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며 기회를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MLB 데뷔 홈런을 쏘아올렸다.

박효준은 지난 10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2루수로 선



▲ 박효준이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기록했다. 사진=피츠버그 파이리츠 홈페이지

발 출전해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세인트루이스 좌완 선발 J.A. 험프리의 시속 146km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빅리그 9경기 30번째 타석에서 나온 홈런이었다. 이 홈런이 이날 피츠버그가 기록한 유일한 안타였다.

이로써 박효준은 추신수, 강정호, 최희섭, 최지만, 이대호, 박병호, 김현수, 김하성, 박찬호, 류현진, 백차승, 황재균에 이어 한국인 중 13번째로 빅리그 경기에서 홈런을 친 선수로 기록됐다. 이날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한 박효준의 시즌 타율은 0.308에서 0.310(29타수 9안타)으로 조금 올랐다. 타점은 4개, 득점은 3개로 늘었다.

이날 피츠버그는 박효준의 홈런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에 1-4로 지며 6연패에 빠졌다.

## ML 최초 진기록, 한 경기 4번 블론세이브에도 승리한 양키스

4명의 투수가 연이어 블론세이브를 하는 진귀한 경기가 나왔다. 그런데도 승리를 한 것이 더 놀랍다. 뉴욕 양키스가 메이저리그 역사에 손꼽힐 만한 경기를 했다.

11일 'OSEN'에 따르면 양키스는 지난 9일 코프먼스 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경기를 연장 11회 접전 끝에 8-6으로 이겼다. 7~10회 4이닝 연속 각자 다른 투수가 연이어 블론세이브가 범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양키스가 기묘하고 거친 경기를 이겼다'고 전했다. 한 경기 4개의 블론세이브를 범한 팀은 지난 1995년 9월29일 휴스턴 애스트로스 이후 역대 두 번째. 당시 휴스턴은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11-12

로 끝내기 패했다.

하지만 양키스는 이겼다. 4차례 블론세이브에도 승리한 최초 기록이다. 양키스는 7회 조나단 로아이스가, 8회 채드 그린, 9회 잭 브리튼이 1점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블론세이브를 범했다. 연장으로 넘어갔지만 10회에도 클레이 홀츠가 1점 리드를 날렸다. 보통 같으면 승기가 넘어가야 정상이지만 양키스는 무너지지 않았다. 11회초 DJ 르메이휴의 결승 적시타와 브렛 가드너의 2타점 적시타로 3득점을 낸 뒤 11회말 완타 페랄타가 1실점했지만 2점 리드를 지키며 세이브를 올렸다.

이날 양키스 선발로 나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투수 제임스 타이운은 “말도 안 되는 경기였다. 양팀 모두 결정타가 필요할 때마다 나왔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기 중 가장 이상하고 험난했다.”고 말했다.

### 타운뉴스 업소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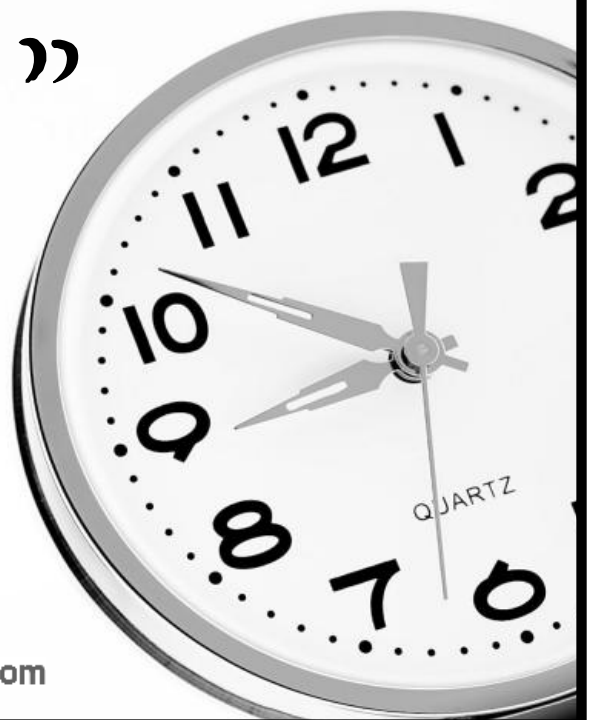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영문):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